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柳 鐸 一*

目 次

- I. 序 言
- II. 編纂經緯
- III. 流通過程
- IV. 『朱子書節要』의 편찬과 朴前光
- V. 餘 言

1. 序言

退溪先生의 저술을 類別했을 때 대개 3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輯錄的 著述. 둘째, 節要的 著述. 셋째, 註釋的 著述로 대별된다.¹⁾ 이 가운데 절요적 방법은 뒷날 학자들의 학문하는 방법과 저술의 한 類型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朱子書節要』(20권 10책)인 것이다.

이는 퇴계가 송나라 朱熹의 『朱子大全』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주자의 학문을 이해하는 端初를 찾기 어려움을 깨닫고, 『朱子大全』에 실린 친구나 제자와의 편지 가운데 주자의 학문에 관하여 매우 긴요한 것과 우리 생활에 受用될 수 있는 것들을 번거로운 것은 節刪하고 그 要旨만을 취택하여 만든(節其繁而取其要) 저술인 것이다.

*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 류탁일, 「퇴계의 문헌관과 문헌학적 학풍의 전개」, 『퇴계학연구』2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8.

이 책은 비록 주자학연구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외래문헌의 한국적 수용이라는데 넘겨버릴 수 없는 귀한 연구거리가 된다. 필자는 일찍 이에 착안하여 관심을 가진 바 있다.²⁾

오늘은 『朱子書節要』의 편찬과정과 유통과정에 생겨나는 異本들의 실상을 문헌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애벌 작업이다. 이에 당시 전라도 寶城 출신으로, 퇴계 문인이 된 竹川 朴前光(1526-1597)을 편찬경위와 유통과정에서 자리 매김 해보는 것으로 끝을 맺겠다.

II. 編纂經緯

朱熹의 문집이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고려 충렬왕 16년(1290) 安珣(1243-1309)이 중국에 갔을 때 주자의 문집을 초록해 가져 왔을 때 부터다.³⁾ 그 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 11년(1421) 안동에 사는 尹 祀라는 사람이 『朱文公集』 32권을 進上⁴⁾했다는 사실로 보아 이전에 민간에서도 朱子の 文集이 유입·유통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주자학의 본격적 연구는 중종 18년(1523) 年間에 교서관에서 『朱子大 全』을 인행·반포하여 퇴계와 같은 대학자의 책상에 오름으로 해서 구체화되었다. 그 뒤 선조 6년(1573) 교서관 제조인 柳希春이 御前에서 선조에게

“요사이 선비들이 다 『朱子大全』을 인출하기를 바라오니 다시 출판해야

2) 류탁일, 「퇴계의 『주자서절요』와 그 영향---외래문헌의 한국적수용과 전개」, 『청천강용권 박사송수기념논총』, 1986 ; 『『주자서절요』주석의 맥락과 그 주석서들』, 『서지학연구』제5·6합집, 한국서지학회, 1990.

3) 『安子年譜』卷一·7 “庚寅(1290) 先生48歲 忠烈王 16年 留燕京 手抄朱子書 又摹寫孔子·朱子眞像 時『朱子書』未及盛行於世 先生始得見之 心自篤好 知其爲孔門正脈 遂手錄其書 又寫孔·朱而歸”

4) 安東人 尹祀進, 『朱文公集』, 「32卷 賜以弓矢囊韃」(世宗11年(1421) 6월 壬寅條)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니 선조는 당연히 출판해야 한다고 허락하고 전처럼 오자가 없도록 하라.⁵⁾

당부하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퇴계 이후 『주자대전』은 당시 학자들이 선호하는 문집이다.

1. 編纂動機

퇴계가 이 『朱子大全』을 처음 본 것은 중종 38년(1543) 그의 나이 44세 이후였다.⁶⁾

심학에 주의를 기울여 『心經』에 심취하고 있던 퇴계는 이 『주자대전』을 접하고는 주자의 인간과 학문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 이에 잠심하던 퇴계는 그가 56세 때 『주자서절요』를 완성했던 것이다.

원래 『주자대전』은 100권이 넘는 거질이어서 그 이해에 단초와 요령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퇴계는 “무릇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發端興起之處가 있는 바이니, 이러한 곳으로부터 학문을 進展해야 한다.”⁷⁾라고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동료와 사제 사이에 주었던 편지 가운데 “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講明旨訣」), 공부하는 과정을 일깨워주었던(「責勉工程」) 편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 節要의 동기를 밝혀 놓고 있다. 그리하여 『주자대전』에 실려있는 1700여 편의 편지 가운데 1000여 편을 選取하고 주자의 인간과 학문을 이해하려는 퇴계 자신의 관점에서 스스로 성람을 위해 그 내용을 번다롭게 여기는 것은 도려내고 요지만을 간추려 그 이름을 『晦菴書節要』라고 했다.

5) 『宣祖實錄』卷七·2 “(柳)希春曰 今則儒林咸願印出『朱子大全』請印如何 上曰當印但校書館員 校正未精 印出多誤……”

6) 『朱子書節要』序 “嘉靖癸卯(中宗38, 1543)中 我中宗大王 命書館印出頒行 臣滉於是始知有是書而求得之……”

7) 『朱子書節要』序 “夫人之爲學 必有發端興起之處 乃可因是而進也”

2. 節要作業의 實際

명종 13년(1558)에 쓴 『주자서절요』의 퇴계 서문에

돌아보건대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를 읽고 탐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곁하여 거기 실린 제자들의 물음이 더러 득실이 있음을 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가운데 특히 학문을 하는 데에 유관하고 실생활의 적용에 절실한 것들을 골라서 이를 표출하였는데, 그 편장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그 요지만을 얻는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친구들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과 子姪들에게 맡겨서 권별로 나누어 淨書를 마치니 무릇 14권 7책이었다.⁸⁾

라고 편찬한 까닭과 과정을 함께 말하였다.

그러면 친구나 子姪에게 맡기어 14권 7책으로 淨書한 시기는 언제였을까 자못 궁금하다.

그의 年譜에 따르면 55세 때(1555)에 “절요한 주자의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필사하게 했다 (「節要朱子書 分與諸生寫之」)”고 했으니 즉 퇴계가 55세(1555) 때 淨寫된 것이 된다.

그러하다면 퇴계는 이 節刪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였을까? 이는 정서 작업을 마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으니, 1555년 즉 55세 이전에 節刪을 시작했을 것이다.

퇴계가 明宗 18년(1563)에 李湛(1510 - ?, 字仲久 號靜存 龍仁人 居京)에게 보낸 편지 앞머리에

당초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읽도록 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다만 老境에 정력도 쇠진하였지만 이렇게 공을 드린 것은 내 스스로 살펴보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⁹⁾

8) 『朱子書節要』序 “顧其編秩浩穰 未易究觀 兼所載弟子之文 或不勉有得失 滉之愚竊不自揆 就求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 表而出之 不拘編章 唯務得要 乃屬諸友之善書者及子姪輩 分卷寫訖 凡得14卷爲7冊 …”

라고 하였다.

즉 「老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략 53 - 55세 사이에 節刪作業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完整稿本

그러면 이 『朱子書節要』의 원고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退溪先生年譜』의 명종13년(1558) 6월 조에 보면 “『朱子書節要』의 序文을 썼다(序朱子書節要)”라고 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편집자의 설명이 붙어 있다.

拔草하던 날에 선생은 책 앞에 붙이는 서문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쓴 발문 비슷한 글이 있었는데, 뒷날 보니 그 語辭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발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다시 고쳐서 서문으로 만들었다.¹⁰⁾

이 인용문에 주목할 것은 跋文으로 쓴 것을 고쳐 序文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문성격을 지닌 글을 붙인 원고본이 있고, 다시 고쳐서 서문으로 붙인 원고본이 있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跋文本原稿」와 「序文本原稿」의 2개의 원고본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두 원고본은 내용이 얼마만큼 다른 것인지 지금에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退溪先生年譜補遺』(『퇴계학문헌전집』19, p.424)에 보면

(퇴계)선생 본역에 『주자서절요』 사본 한 질이 있는데, 卷帙이 심히 오래 된 것이어서 자획이 많이 이그러져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람한 것이

9) 『退溪集』 「答李仲久書」 “當初不期與四方共之 只爲老境 精力短乏 須此節約之功 以自便於省覽耳”

10) 『退溪學文獻全集』 제19책 「退溪先生年譜補遺」 p.431 草成之日 先生不欲以弁首 自居名之曰跋 後嫌其語多不合於跋 改爲序

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¹¹⁾

라고 했으니 지금도 퇴계 종가에 남아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지만, 이것이 『발문본원고』나 『서문본원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퇴계 당시 원고본으로서 14권 7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星州에서 黃俊良이 1561년 처음 임고서원 목활자를 차용하여 인행한 『회암서절요』는 15권 8책이다. 그 후 1575년 星州 川谷書院에서 간행한 목판본 『주자서절요』는 20권 10책이었다. 이래서 『주자서절요』의 종류는

- 1) 14권 7책본(사본. 당시 書名은 『晦菴書節要』)
 - 2) 15권 8책본(臨臯書院 木活字本. 서명은 『회암서절요』)
 - 3) 20권 10책본(川谷書院 목판본. 書名은 『朱子書節要』)
- 등 3종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 流通過程

그러면 이렇게 편찬된 『朱子書節要』는 어떻게 유통되었을까? 문헌에 있어서 유통의 媒體로서는 筆寫와 印刷의 두 방법이 있다.¹²⁾

1. 轉寫流通

이 『晦菴書節要』가 명종 16년(1561) 성주 목사 황준량에 의해 목활자로 인쇄되기 이전까지는 약 3년 동안에는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필사되어 유통되었을 것이다. 이 동안에 제자들과 강론을 함에 모두 이를 필사하여 교재로 삼았던 것이다.

『鶴峯先生年譜』에 보면 학봉이 25살 되던 해(1562) 가을 도산서원에서

11) “先生家有『朱子書』寫本一帙 卷帙甚舊 字畫幾剝 乃讀而然也”

12) 류탁일, 「고소설의 유통구조」, 『한국고소설론』, 아세아출판사간, 1991.

『주자서절요』의 강론이 있었는데, 그 때 학봉은 “손수 轉寫해서 항상 스스로 간직하고 잊지 않았었다”¹³⁾고 하니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상당히 轉寫되어 유통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퇴계로부터 받은 『(竹川本)晦菴書節要』(寫本)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현재 고려대 도서관 「晚松文庫」에도 『晦菴書節要』 零本 1책(卷之四)의 筆寫本이 보존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필사본들을 조사하여 계보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까지는 1558년에 퇴계 자신이 쓴 서문은 붙지 않고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본일지라도 퇴계의 서문이 붙어 있으면 이는 1575년 이후에 필사된 사본인 것이다. 그 까닭은 퇴계의 서문은 『천곡서원 간행본』부터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朱子書節要』의 最古의 完帙寫本은 1561~1567년 사이에 필사된 『竹川本晦菴書節要』(15권 8책)이다.(後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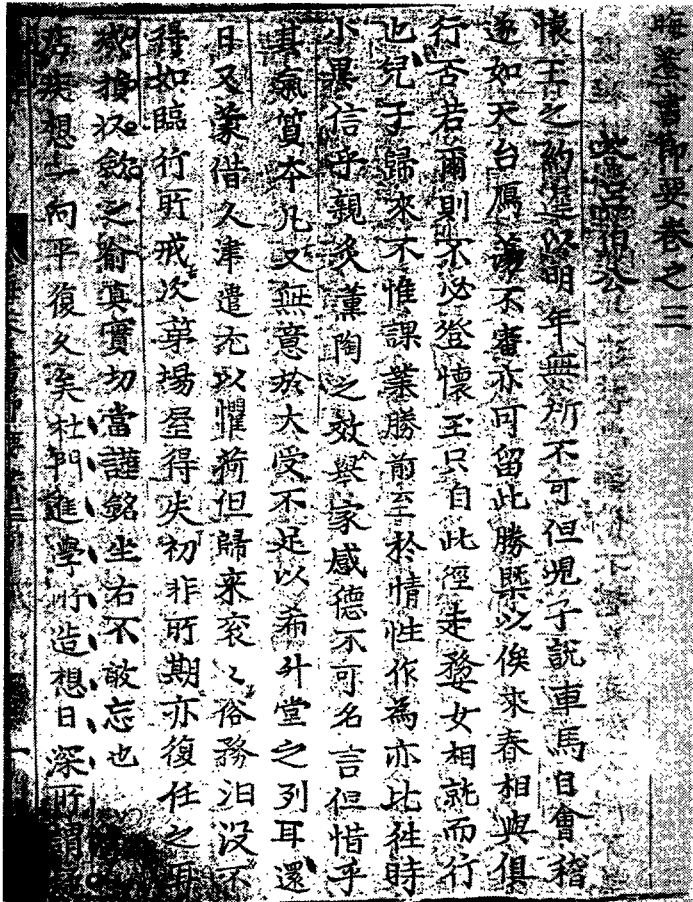
2. 印刷流通

당시 학자들에게 필독도서였던 『주자서절요』는 마침내 인쇄매체를 통하여 유통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도 유출되어 여러 번 간행되었다. 이들을 국내와 국외로 갈라 간행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板本을 챙겨볼 것이다.

1) 國內流通

(1) 星州本 『晦菴書節要』 : 15권 8책 黃俊良印本 附黃俊良跋(1561) 臨臯書院木活字

13) 「手自傳寫 常自服膺」



<사진1> 성주본 『晦菴서절요』 : 1561년에 성주에서 임고서원 활자를 빌어서 찍은 책 (고려대 소장본)

1566년에 『晦菴書節要』가 완성되어 필사본으로 유통되다가 급기야 퇴계의 제자인 黃俊良(1517-1563)이 성주목사로 있을 때, 永川 臨臯書院의 활자를 빌어와서 인출하니 『晦菴書節要』가 처음 印本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錦溪 黃俊良은 그 책의 발문에서

“... 『朱子語類』 같은 글들은 그것이 비록 典雅한 말들이기는 하나 그 기록들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스승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완전히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¹⁴⁾

라고 하고서 이 書札 만큼은

모두 선생(주자)이 직접 써서 제자들을 勉進하게 한 것으로 그 혈혈정성이 나와 남과의 사이에 아무런 간극을 두지 않고 오로지 이치를 궁구하고 이를 터득해서 몸을 닦고 실천하여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둔 것이어서 ‘그 재능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고 그 증세에 따라 (약)을 처방한 것’¹⁵⁾

이라고 말한 다음,

이 책이 간행되어 유행하게 되면 『近思錄』과 더불어 함께 『四書』에 들어가는 계단이 될 것이며, 규모의 방대함과 심법의 엄밀함은 오히려 孔孟 二程이 계발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런데도 퇴계 선생은 오히려 취하고 버린 일이 참람하고 외람된다고 하면서 이 책을 만든 자로 지목 받기를 혐의찍어 하였다.¹⁶⁾

이렇게 동기와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간행의 경과를 밝혀 놓았다.

나는 이에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벽장 속에 보관해 둔 한 부의 책(『晦菴書節要跋』)이 만약 없어지고 만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영천에 있는) 臨臯書院 소장의 활자를 빌리고, 또 監司 洪曇(1509-1576)으로부터 절반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인행하였으니 일개 고을의 역량이 넓지 못함이 한스럽다.¹⁷⁾

-
- 14) 黃俊良, 『晦菴書節要跋』 如『語類』諸書 雖皆雅言而記者非一手 亦未必盡得師傅之意也.
- 15) 상동; 「皆夫子手筭而勉進 血誠無間於人已 要以格致 修爲變化 氣質爲功(중략) 因材而施教 對症而施藥」
- 16) 상동; 將見是書之行 與『近思錄』 同爲『四書』之階梯而 其規模之大 心法之嚴則 又有四先生所未發者矣 然而退溪公 猶取舍於僭踰 嫌居於指目
- 17) 상동; 俊良輒不自揆 深懼巾衍一本 易致漫滅 借活字於林臯書院 又得洪使相曇 助錢

고 하였다.

이렇게 활자로 印行하게 되니 많은 부수를 찍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황준량의 『회암서절요』 인행에 대하여 퇴계는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定州에서 柳仲郢이 목판으로 다시 간행할 때 퇴계 자신이 교정한 원고본을 謙庵 柳雲龍에게 보낸 答書에서

당시 황중량이 초본 안에 있는 발문 가운데(당신을 칭찬하는 말)를 도려내라고 하였는데, 금계가 들지 않고 아울러 간행했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¹⁸⁾

라고 하고는 그 錦溪의 발문 가운데 퇴계 자신을 칭찬하는 語辭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 때 책이름은 『晦菴書節要』이며, 퇴계의 승인과 교정을 거치지 않고 인행하다 보니 내용이 온전한 것이 못되고 오자가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황준량이 인행한 활자본이 현재 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귀중한 연구자료가 된다.

현재 도산서원에는 15권 8책의 木活字 完本이 남아 있으며,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와 대구계명대 도서관에 영본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성주본 『회암서절요』는 본문은 모두 목활자로 찍은 것이지만 황준량의 발문만은 8행 14자 행서로 쓴 목판인쇄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稿를 달리하여 학계에 보고할 것이다.

* 『晦菴書節要』 : 朱熹(宋)著, 李滉編. 木活字本 15권 8책. 四周單邊, 有界, 12行 21字 半廓 : 17.3 × 24.4cm. 欄外識語 : 陶山書院, <陶山書院藏>

* 『晦菴書節要』 : 朱熹(宋)著 李滉(朝鮮)節要 木活字 臨臯書院 明宗 16(1561) 零本 7책 31.9×21.2
四周單邊 24×17.7 12行21字 小字雙行 下向黑3葉花紋

一半 僅得卒事 一邑之力 恨未廣也

18) 『退溪先生文集』 卷三五·「答應見」 當時錦溪 草本內抹去 錦不聽而并刻之 至爲非矣

魚尾

跋:「嘉靖辛酉(1561)五月甲辰 箕城黃俊良謹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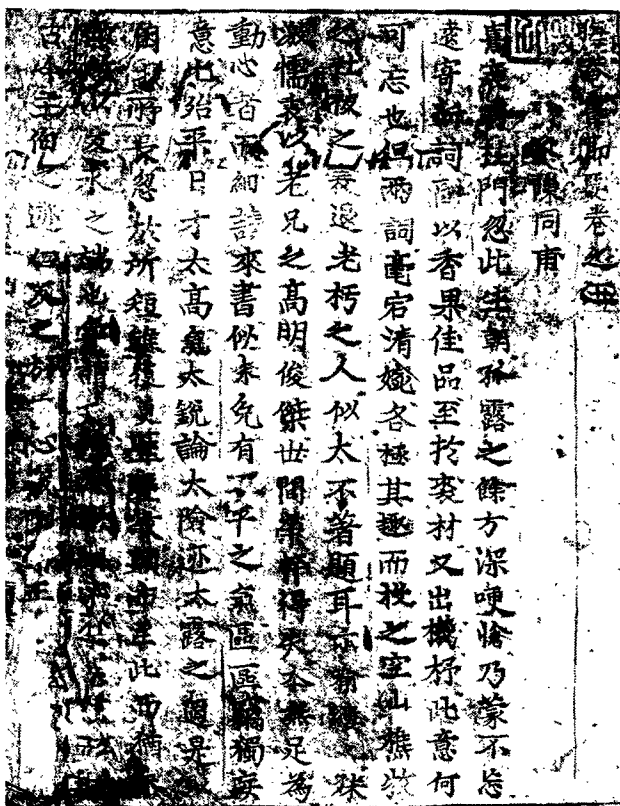
缺本 卷之一(전15권8책) 請求記號「貴237」, <高麗大
「晚松文庫」所藏>

*『晦菴書節要』: 編者未詳 木活字本 刊年未詳 1책(零本)

31.2×21.2 東裝

四周單邊 半廓 23.7×18 有界 12行21字 下向花紋魚尾

所藏本: 卷3-5 請求記號: 01.181.2416, <啓明大學校 中
央圖書館 所藏>



<사건2> 계명대학이 소장한 1561년 성주에서 인쇄할 때 이루어진 성주본 『회암
서절요』의 卷四의 修訂本

이렇게 『회암서절요』가 인행된 2년 후 퇴계는 서울에 사는 李仲九(1510 - ?, 名湛 字仲九 號靜存 龍仁人 居京)로부터 이 책에 대하여 비판적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 의리의 정심함과 事爲의 수작함에 있어서 내 몸 내 마음에 절실한 것을 응당 먼저 취택해야 할텐데 개중에는 緊切하지 않은 것을 수록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퇴계는 그 까닭을 밝힌 회답편지가 이 책에 붙어 있는 『退溪先生答李仲九書』¹⁹⁾인 것이다.

너무 장황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는 여러 사람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省覽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며,

둘째, 내 몸 내 마음에 절실한 것을 뽑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편지에는 사람이나 사물에 있어서 有關한 것도 있는데, 不緊하다 하여 빼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며,

셋째, 때로는 정겨운 안부를 묻고 때로는 山水自然을 즐기는 일과 혹은 세상을 슬퍼하고 세속을 한탄하는 것 등 不緊한 것을 취택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朱子를 親見한 듯 그 인간다움을 접해보자는 것이며,

넷째, 義理를 논한 것이 아니며 心身에 절실하지 못하다 하여 죄다 빼어버리면 어찌 옛사람의 ‘師友之道’를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어떻든 이런 취지에서 편찬한 『회암서절요』는 그 때까지 비록 내용을 완전하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성리학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필독 도서였기에 그의 제자 황준량은 퇴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를 인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최초로 출판된 『晦菴書節要』(목활자본)인 것이다.

19) 이 편지의 전문은 『退溪先生文集』卷十·33-6, 「答李仲九 癸亥(1563)」에 실려 있다.

(2) 海州本 『晦菴書節要』: 15권8책(?), 1564, 活字本
附黃俊良跋(1561)(?)

(3) 平壤本 『晦菴書節要』: 15권8책(?), 1564-6, 活字本
附黃俊良跋(1561)(?)

이 해주본은 柳仲郢(1515-1573, 字彥遇 號立巖 本豊山 柳雲龍 柳成龍의 父)이 海西觀察使로 있을 때, 1564년 7월에 활자를 이용하여 찍어낸 것이다.²⁰⁾ 이 사실은 柳仲郢이 定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定州本에 붙은 奇大升(1527-1572)의 跋文(1567)에서 그 사실이 발견된다.

연전에 사문 황준량이 성주에서 이를 인행한 일이 있고, 또 지금 정주목사로 있는 유중영이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이를 인행했으며, 그 뒤 평양에서도 인행한 것이 있으나, 이는 모두 활자를 사용한 관계로 인쇄한 뒤에는 판을 헐어버렸고, 인출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학자들에게 널리 전포되지 못함을 안타까와 했다.²¹⁾

이 때 인행한 실물이 현재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퇴계가 謙菴에게 보낸 편지²²⁾에서 “「성주본」과 「해주본」은 왕왕 주를 나누어 새겨서 소략한 점이 많다(星海二本 往往分註入刻 但多疏略)”한 사실과 “「성주본」은 종이가 얇아서 紙毛가 많이 일어나는데 비해 해주에서 새로 만든 海州本은 종이가 좋다(星本紙薄毛起 海本新件紙好)”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해주본과 평양본은 그 서적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고, “그 뒤에 평양에서도 찍었다(「其後 有印之于平壤者」)”고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1564년에 인행된 해주본보다 평양본이 늦게 인행된 것임은 확인되지만, 그 실물이 현재 전하고 있는지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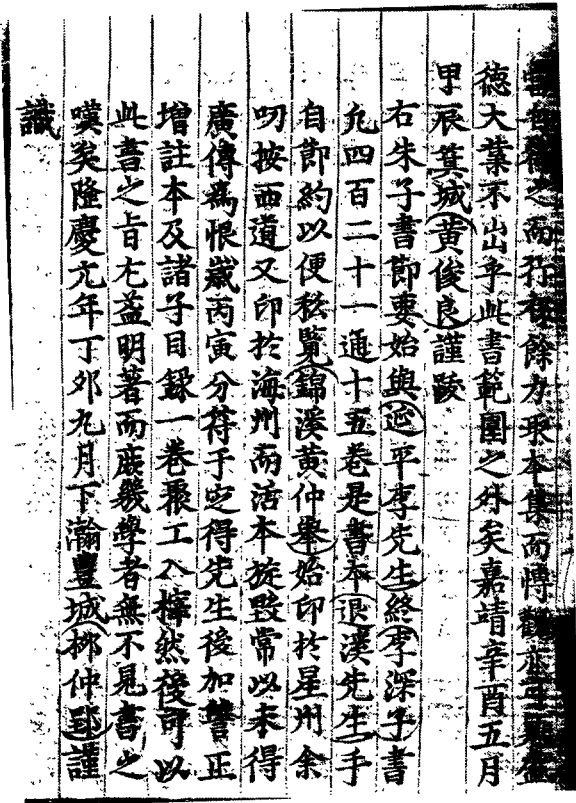
20) 『謙菴集』 卷六·20 「先府君行年記」 丙寅(1566) 正月 爲定州牧使 二月赴任 …, 板刻退陶先生所編『晦菴書節要』

21) 奇大升, 定州本 跋 頃年 黃斯文俊良 印之于星州 今定州牧 柳公仲郢 持西海節 又印之 其後有印之于平壤者, 第皆用活字 印訖旋毀 而所印亦無幾 學者病其傳布之弗廣也.

22) 『退溪先生文集』 卷三五·10 「答柳應見」,

한 평양본은 누구에 의해 인행되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주본과 평양본은 성주본을 저본으로 인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陶山書院에 소장한 木活字本 『晦菴書節要』가 행어 定州本 木活字本인지 平壤本 活字本인지 알 수 없다. 實書對照가 요망된다. 그런데 이 3본은 활자본이어서 壬辰倭亂 이전 지방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하루 빨리 그 소재가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 (4) 定州本 『朱子書節要』: 15권8책, 1567, 木版本
 附黃俊良跋(1561), 柳仲郢後識(1567), 奇大升跋(1567)



<사진3> 定州本 『朱子書節要』 柳仲郢의 跋文(1567) 嶺南大學 圖書館藏

1564년 立巖 柳仲郢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星州本 『晦菴書節要』를 저본으로 하여 해주 지방의 활자로 인쇄하고, 그 3년 후인 1567년 定州敎使로 있을 때, 다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해설 및 목록을 붙인 퇴계 자신이 교정을 본 完整本을 奇大升의 발문을 붙여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그때가 명종 23년(丁卯, 1567) 겨울이었다.

원래 퇴계는 『晦菴書節要』를 자기 스스로 省覽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고, 또 대학자의 글을 자기 뜻에 따라 節畧한 것이어서 공부하는 자료로서는 무방하지만, 이를 간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언짢게 여겼던 것이다. 게다가 황준량이 誤字 투성이의 성주본을 불쑥 인쇄·보급하게 되었으니 기회 있을 적마다 그 인본이 적절하지 못함을 피력하였다. 그런데도 이 책은 곧 해주에서 또는 평양에서 인쇄되었으니, 당시 학계에 이 『晦菴書節要』가 신선한 충격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柳仲郢은 활자로 인쇄하니 수요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이를 목판으로 15권 8책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정주본의 말미에 금계 황준량의 기존의 발문과 정주본 간행에 대한 기대승의 발문을 붙였던 것이다. 황준량의 발문 후미에 글자를 두 자 낮춘 유중영의 跋文後識가 붙어 있다. 그 全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주자서절요』는 延平 李선생에게 주는 편지로 시작해서 李深子에게 주는 편지를 끝으로 무릇 421통 15권이 된다. 이 책은 퇴계 선생께서 손수 절약하여 스스로 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인데, 錦溪 黃俊良이 처음으로 星州에서 출간하였다. 내가 海西의 관찰사로 있을 때, 또 海州에서 (활자로) 인쇄하였으나, 활자본이란 (인쇄가 끝나면) 活字版을 곧장 헐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널리 廣布 못함을 恨스러워 했다. 丙寅年(1566)에 정주목사로 분부 받자 곧 퇴계 선생이 讜正한 增註本과 諸子目錄 一卷을 얻게 되자 곧 上梓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책의 내용이 더욱 더 밝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바라건대 학자들이 책이 없어서 못 보았다는 한탄은 가시게 된 것이다.²³⁾

23) 定州本『朱子書節要』 제15권, 末 柳仲郢後識 右『朱子書節要』始與延平李先生 終李

이 跋文後識으로 볼 때, 정주본 『주자서절요』는 퇴계의 讐正增註本 15권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저간의 경과는 어떠한이었을까? 이렇게 간행되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立巖 柳仲郢은 항상 任地에 있어야할 목민관이어서 주로 젊은 두 아들, 즉 謙菴 柳雲龍과 西厓 柳成龍 형제를 통해서 퇴계와의 意思를 주고 받았던 것이다.

柳仲郢이 정주에서 목판본으로 다시 『주자서절요』를 간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퇴계는 그의 아들 柳雲龍이 정주로 간다기에 다음과 같이 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定州에서 『晦菴書節要』를 간행코자 하는 것은 立巖 柳仲郢의 뜻임을 알지만, 대학자의 글을 (나 같이) 비루한 사람의 손을 거쳐 참람하게 절약된 것을 廣布한다면, 이는 말썽 만 일으킬 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네. 그러하니 公(謙菴을 말함)과 아우인 而見(柳成龍의 字)과 함께 틈을 보아 그 까닭을 (아버님에게) 여쭙고 (간행하시는 일은) 그만두도록 만류하는 것이 좋겠네.²⁴⁾

하고는 이어서,

해주본 초권을 근래에 와서 교정을 마쳤는데, 闕誤가 많았지만 이미 改修를 끝냈네. 그 改修한 곳에서는 일일이 付標를 붙이고 그렇게 된 까닭을 밝혔네. 아마도 자네 삼촌인 景文(柳仲淹(1538-1571)의 字)이 이 책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 이 표를 보고 改正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교정을 볼 수 있을 것

深子書 凡四百二十一通 十五卷 是本退溪先生 手自節約 以便私覽 錦溪黃仲舉 始印於星州 余叨按西道 又印於海州而活本旋毀 常以未得廣傳爲恨 歲丙寅(1566)分符于定得先生後加讐正增註本及諸子目錄一卷 聚工入梓 然後 可以此書之旨 尤益明著 而庶幾學者無不見書之嘆矣 「隆慶元年丁卯(1567) 九月下辭 豐城 柳仲郢 謹識」,

24) 『退溪先生文集』 卷三五·10 「答柳應見」… 又欲刊『朱子書』於定州 固知令公 此意甚盛 但此雖前賢大訓 經鄙人僭有節約而如是廣布 無乃益爲不樂者詬病耶 公與而見 不可不量時度 宜具白其故而止之 乃爲善也.

이며, 功 안 드리고 쉽게 온전한 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²⁵⁾

라고 하였다.

이렇게 간행·광포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마침내 퇴계는 해주본을 저본으로 하여 교정과 약간의 增註를 마친 원고본을 정주에게 있는 柳雲龍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 ① 교정본을 보내는 까닭은 자네들이 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訛誤를 고치지 않는다면 남이나 내 스스로에게도 그르침이 많을 것이기에 이 교정본을 보고 고치도록 함이요,
- ② 자네들은 곧장 아버지께 아뢰어 그 간행하는 일을 그만 두도록 해 줄 것이며, 만일에 듣지 않으시고 이 誤本을 그대로 간행하게 된다면 자네 형제들이 조처를 잘못 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길 것이며,
- ③ 부탁한 (『晦菴書節要』)의 「目錄」은 매양 만들려고 했으나, 병들고 게을러서 아직 만들지 못하였고,
- ④ 紙頭註釋은 성주본이나 해주본 모두 왕왕 주를 분리해서 간행하여 소략한 점이 많으나, 아직 죄다 거두지 못하였고 여기 보내는 교정본은 전에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掛一漏萬이니 남들 보기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며,
- ⑤ 부호 圈點은 내 스스로 의사를 警發시키는 곳에 붙인 부호인 것이니 이런 것까지 아울러 간행한다면 具眼者에게 죄를 얻을까 두렵고,
- ⑥ 序文은 전에 갑자기 지은 것이어서 語辭가 맞지 않고, 또 스스로 序文을 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두었다.²⁶⁾

25) 上全 海州本 初卷 近方尋得畢校 多有闕誤 已皆改修 其修改處 一一付標所以然者. 恐公昆父及景文 有此本者 看標改正則 不勞贅校而得爲完書 爲功甚易故也.

26) 『退溪先生文集』 卷三五·11 「答柳應見」 … 校正本所以寄君者 君等既皆有其本 而訛誤不改則 誤人與自誤必多 欲其依此 修改 故也 君等當白令前 早停刊布之舉上也. 萬一未蒙聽許則 又不可仍刊誤本 此則在昆季所處 目錄每欲爲之 病倦未及. 紙頭注釋 星海二本 往往分註入刻 但多疏略而又未盡收 今所校本 比前此勝 然猶掛一漏萬 豈足於人見耶. 圈點 所以自表 其警發意思處 甚覺於昏滯有益 然以之并刊示人則 大恐得罪於具眼識理之人 何可安心爲之. 序文向者 卒然爲之 語頗支蔓 不入矩度 又思

이렇게 퇴계는 교정본을 보내기는 했었지만, 이 『晦菴書節要』 간행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目錄 頭註 書中符號 등 하나 하나 짚어 놓았다.

이에 정주에서 이 퇴계의 교정본을 받아 간행하던 중에 柳仲郢은 퇴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올렸다.

전날에 보내주신 『晦菴書節要』校本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간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西北 사람들도 性理學에 관한 서적을 얻어 읽게 되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보내주신 목록이 붙지 않는 『晦菴書節要』만을 간행하게 되니 실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생께서) 내용의 차례대로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 『名臣言行錄』처럼 인물 이름 아래 간략하게 注를 붙여서 그 사람의 出處를 밝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朱子께서 당시 교유하던 사람의 이력을 한 번만 봐도 瞭然하게 될 것이며, 공부하는 사람에게 유익함이 많을 것입니다.²⁷⁾

이렇게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보완해 줄 것을 퇴계에게 청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 선생이 일찍 이를 玩釋하다가 어려운 곳에는 주석을 달아 둔 것과 한편, 목록 한 권을 만들고 다시 知舊와 門人들의 성명과 事蹟을 실어 둔 것을 받아서 아울러 간행하게 되니 비로소 완전히 정리된 完稿本이 되었던 것이다.²⁸⁾

이 때에 『晦菴書節要』라는 종래의 이름을 퇴계에게 품의하여 『朱子書節要』로 고쳤고,²⁹⁾ 끝내 퇴계의 序文은 받지 못하였다. 이 때에 본래에

自爲之 又未穩善 故罷之 …

27) 柳雲龍, 『謙庵集』 卷六·20 「先府君行年記」 中 「上退陶先生書」 前承下送『晦菴書節要』校本 今刊得幾半 自此西北人 可見性理之書 深荷深荷 然今若只刊得書之節要 而未弃目錄 則實未該備 幸以其書之次第 抄爲目錄 略於名下 記其人之出處 如『名臣言行錄』名下之注 則文公一時交遊之人之事 一矚目可以瞭然 其爲有益於進修必多

28) 『朱子書節要』 奇大升: 「定州刊朱子書節要跋」(1567) 先生又嘗於玩釋之餘 遇難解處 輒有注語 且成目錄一卷 載其知舊門人姓名事實 以爲窮鄉晚學 疑礙破惑之資 柳公并取而刻之 始得完書 可以傳之永久而無弊焉

29) 『退溪先生續集』 卷六·15 「答柳希范 而見」 … 其題目改『晦菴』曰『朱子書』者 亦

붙어 있던 「星州本黃俊良跋」(1561)에다가 「定州本奇大升跋」(1567)을 첨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퇴계가 처음 만든 14권 7책의 『晦菴書節要』의 原稿는 星州·海州·平壤에서 15권 8책으로 출판되었다가 定州本에 와서야 책이름을 『朱子書節要』로 바꾸고, 15권 8책의 完整本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정주본 『주자서절요』의 서지적 특징은 本文書名은 『朱子書節要』라 되어 있으나, 版心題는 「晦菴書節要」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15권 말미에 붙은 발문의 판심제만은 「朱子書」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人名標示의 ()는 새겨 두었으나 文章의 警發處인 批點과 圈點은 인출한 뒤에 붓으로 찍은 것이 특징이다.

(5) 川谷書院本 『朱子書節要』 : 20권 10책 (1575), 木版本

附 退溪先生序(1558), 奇大升後識(1572), 黃俊良跋(1561), 奇大升跋(1567), 答李仲久書(1563)

목판본으로 완벽하게 『朱子書節要』가 평안도 정주에서 柳仲郢에 의해 간행은 되었지만, 정작 이 영남쪽에서는 보급되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그 10년 뒤인 宣祖 8년(1575)에 다시 星州에 있는 川谷書院에서 20권 10책으로 재정비하여 重刊을 하게 되니 이것이 「川谷書院本」(1575)인 것이다. 이 때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퇴계 선생의 유물 속에서 퇴계 자신이 쓴 『朱子書節要』의 序文이 발견되었다. 이 序文은 명종 13년(1558)에 쓴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퇴계의 서문을 앞에 붙이고 뒤 이어 한자 낮추어 奇大升이 그 간행경위를 밝힌 後識(1575)를 붙였다. 그리고 『朱子書節要』를 비판적 안목에서 질의한 퇴계의 회답인 「答李中久書」(1563)도 이 때에 붙였던 것이다.

이제 奇大升의 後識(1575) 全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後來所欲更定者如此 已於家藏印本 逐卷皆改作此二字 故此錄名同之 未知貴州(指定州)刊本 亦可盡改同此乎 勢難則亦無如之何耳

퇴계 선생의 이 서문은 嘉靖 戊午(1558)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선생의 나이 58세였다. 선생은 이를 淨寫하여 冊幘 깊이 감추어 두고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대저 그 뜻은 책을 편찬 저술하는 것으로 자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뒤 학자들이 이를 보기를 요구함에 따라 차츰 그 節要가 세상에 유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를 板刻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자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이름을 『朱子書節要』라고 고치고 目錄과 註解를 함께 묶어 출판했으나 序文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그 문하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비로소 선생의 手稿를 얻어 보고는 “선생께서 이를 집록한 뜻은 결코 세상에 전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고는 드디어 이를 베껴서 책머리에 붙이게 된 것이다.

隆慶 6년(1572) 9월 일 後學 高峰 奇大升이 삼가 쓰다.³⁰⁾

이 천곡서원본을 간행할 때 비로소 퇴계의 서문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에 황준량의 발문을 성주본과 같이 붙이면서 다만 書頭 “嘗讀(心經見程篁墩附註所載朱門問答之書)言近而指遠”을 “嘗讀(朱門講學往復之書或見於諸書者率皆)言近而指遠”(()안 16자 참고)으로 고쳐서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읽은 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친 것은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 뒤에 간행되는 황준량의 발문은 모두 이 내용을 따랐다.

그런데 이 책을 성주의 川谷書院에서 간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奇大升의 後識가 끝나는 장에 “萬曆乙亥(1575)季夏重刊于川谷書院期年而畢功”이라는 刊記가 새겨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지 1년 만인 萬曆乙亥(1575)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 先生此書 成於嘉靖戊午(1558) 是時先生年五十八矣. 手自淨寫 藏之巾笥 未嘗出以示人. 蓋其微意 不欲以纂述自居也. 後因學者 求觀節要則浸以流布 至有入梓 以廣其傳者 乃更名『朱子書節要』并刻目錄及註解 而序則終不出焉 先生既歿 門下諸人 始得見其手稿 咸謂先生輯錄之意 不可使無傳 遂磨刻以眞卷首云, 隆慶6年9月日 後學 高峰 奇大升 謹識

그러면 川谷書院은 어떠한 書院인가 자못 궁금하다.

『嶠南誌』星州條에 보면 천곡서원은 성주 서쪽 한 20리 되는 곳에 明宗 戊午(1558)에 牧使 盧慶麟이 創建하여 庚申(1560)에 牧使 黃俊良이 완공한 書院이다. 扁額을 ‘延鳳書院’이라 하고 李兆年·李仁復·金宏弼·鄭述 등을 모셨는데, 우연이 地名이 중국과 같아서 퇴계에게 품의 하여 伊川과 雲谷 두 분을 함께 모셨고 이름을 ‘川谷書院’이라 하였다.³¹⁾

천곡서원에서 이 책을 간행할 때 퇴계의 서문을 붙이고 권수를 調整하여 20권 10책으로 完定하여 간행하였다. 이리하여 북방에는 정주본이 있고 영남에는 천곡서원본이 있어서 학자들의 수요에 충당하게 되었다. 이후에 간행되는 판본은 모두 천곡서원본을 복각하거나 改刻한 것이며, 이는 일찍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였다.

(6) 羅州(錦城)本 『朱子書節要』 : 20권 10책, 1586, 木版本

附 退溪序(1558), 奇大升後識(1572), 黃俊良跋(1561), 奇大升跋(1567), 答李仲久書(1563)

이렇게 해서 서북지방에는 정주본이 있고 영남에서는 천곡서원본이 있어서 그 지방 학자들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었으나, 호남지방 학자에게는 지역이 멀어서 求得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퇴계 선생의 高弟 鶴峰 金誠一(1538-1593)은 宣祖 19년(1586)에 전라도 羅州牧使로 있으면서 이 『朱子書節要』를 간행했던 것이다. 이 책의 간행 경위에 대해선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학봉 김성일의 年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다.

丙戌年(1586)에 『朱子書節要』와 『退溪先生自省錄』을 간행하였다(학봉 선

31) 『嶠南誌』卷13, 「星州條」在郡書二十里 明宗 戊午(1558) 牧使 盧慶麟創建 庚申(1560)牧使 黃俊良訖功……扁以‘迎鳳書院’ 將奉安 文烈公李兆年 文忠公李仁復 文敬公 金宏弼 後鄭述 引臥龍故事 稟李滉 以地名偶同 享伊川 雲谷兩夫子 …

생은 이와 같은 책을 사사로이 冊藏에 감추어 두면 후학들이 재빨리 얻어보기 어려우니 이는 실로 斯文의 흠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儀禮圖』와 『鄕校禮輯』 같은 책을 아울러 이 羅州 땅에서 간행하였다.³²⁾

학봉이 선조 16년 癸未(1583, 46세)에 나주목사로 除授되어 그 이듬해 봄에 羅州의 錦城山麓에 터를 잡고 ‘大谷書院’을 창건하고 寒暄堂(金宏弼)·一蠹(鄭汝昌)·靜菴(趙光祖)·晦齋(李彥迪)·退溪(李滉) 등 다섯 분을 모셨다. 『朱子書節要』도 이런 일련의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때 함께 간행된 『退溪先生自省錄』의 권말에 “萬曆13年(1854)乙酉冬 羅州 牧開刊”³³⁾란 刊記가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그 무렵에 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현존 유무에 대한 것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찾아지는 대로 밝혀 둘 예정이다.

이리하여 호남지방 학자들에게도 이 『주자서절요』가 보급되어 성리학 연구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이다.

(7) 錦山本(完營本)『朱子書節要』: 20권 10책, 1611, 木版本

附 退溪先生序(1558), 奇大升後識(1572), 黃俊良跋(1561), 奇大升跋(1567), 答李仲久書(1563)

刊記: 「萬曆39(1611)年仲秋刊于全州府」(陰刻)

32) 『鶴峰先生文集』附錄 卷一·15 丙戌(1586) 秋刊 『朱子書節要』 『退溪先生自省錄』(先生以爲此等文字 私藏巾衍 後學不得早見 實斯文欠事 乃與 『儀禮圖』 『鄕校禮輯』等書 而并梓于本州)

33) 이 『自省錄』은 1658년에 일본 사람 石齋鶴信의 訓點을 붙여서 1665년에 일본의 平樂寺에서 出版되기도 했다.

圖鳩工聚材淨寫以觀之而先生又嘗於玩繹之餘遇難解處輒有註語且成目錄一卷載其知舊門人姓名事實以為窮鄉晚學祛疑破惑之資柳公併取以刻之其書始得完整可以傳之永久而無弊焉李先生深於用功思及後學之意固可見矣而柳公以傳布是書為心勤懃懃懃終能有以成之其事亦可尚也覽是書者不可不知其所由然於是乎識隆慶丁卯仲冬日後學高峯竒大升跋

萬曆三十九年仲秋重刊于全州府

<사진4> 금산본 『주자서절요』의 권말 刊記

1586년 羅州本이 간행된 뒤 한 25년이 지난 뒤에 西厓 柳成龍의 제자인 鄭經世(1563-1633)³⁴⁾가 全羅道觀察使로 있을 때인 1611년 錦山에서 이 『朱子書節要』를 간행하였다.

사실은 鄭經世의 年譜에 간행의 대략을 밝혀 놓고 있다.

34) 字景任 號愚伏 本晉陽 西厓 柳成龍門人 居尙州

신해(1611) 광해군 3년 선생이 49세 때 『朱子書節要』를 간행하였다. (愚伏)선생은 늘 이 책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나 나라 안에 널리 유포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錦山에서 刊役을 시작하고 친히 간역을 看檢하고 간혹 주해가 잘못된 것은 別考하여 各編末에 붙이고 달포를 넘기지 않고 일을 마쳤다.³⁵⁾

첫째, 『朱子書節要』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급을 위해 간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잘못된 주해를 고쳐서 각 편말에 붙였다는 改收本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이전에 간행된 것과는 주석의 다른 점이 있겠는데,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錦山本 권10 끝장에 보면 「朱子書節要卷之十」이라고 끝을 낸 다음 잇달아 “別考答李深卿書註守而告之未詳(按史記孟嘗君傳不足者 雖守而責之十年息愈多)”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우복이 잘못된 주해를 벌고하여 각 편말에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주본이나 천곡서원본 또는 나주본 어느 것을 저본으로 간행했는지 지금에 판단이 안 된다.

그런데 현전하는 1611년에 간행된 『朱子書節要』(고려대장본)에 “萬曆39(1611)年仲秋刊于全州府”라고 새겨 있으니 아마도 간행은 실제로 금산에서 했지만 전라감영의 소관 사업이어서 그렇게 刊記를 넣은 것 같다.³⁶⁾

(8) 癸亥本 『朱子書節要』 : 20권 10책, 1743刊, 木版本

附 退溪序(1558), 奇大升後識(1572), 黃俊良跋(1561), 奇大升跋(1567), 答李仲久書(1563)

35) 『愚伏先生別集』 卷之四, 27 辛亥(1611) 萬曆39年(光海君3年) 先生 49歲 6月 刊『朱子書節要』. 先生常以此書 爲最切於學者 恨國中流布不廣 至是開役於錦山 親自檢看 間或付別考於各編之末 以訂其註解之訛 不踰月而訖功

36) 「嶺湖列邑所在冊版目錄」의 ‘錦山’조에 ‘『朱子書節要』 白紙 23束’이라고 있는 것을 보면 책판은 출간한 錦山에 두었던 것 같다.

도산서원에서는 1724년경에 『退溪先生文集』을 중간하고 8년이 지난 1732년에는 『退溪先生言行錄』을 간행하였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1743년에 陶山書院에서 重刊한 것이 바로 이 癸亥本 『朱子書節要』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에 간행된 『朱子書節要』의 板式을 그대로 간행한 것이다. 간행에 대한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다만 奇大升의 跋文 끝에 줄을 바꾸어 “上之十九年癸亥(1743 英祖 8年)秋陶山書院刊”이라고 한 간기를 통하여 간행 연대와 장소를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紙頭에 주해는 없고 원문을 중국본 『朱子文集』과 대조하여 달리 쓰인 까닭을 紙頭에 네모꼴의 테를 하고 그 속 새겨 놓은 것이 타본과 다르다.

(9) 甲辰本 『朱子書節要』 : 20권 10책, 1904刊, 木版本

附 退溪序(1558), 奇大升後識(1572), 黃俊良跋(1561), 奇大升跋(1567), 答李仲久書(1563)

이 책은 癸亥本을 간행 뒤 162년이 지난 高宗 41년 甲辰(1904)에 다시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刊記 “元陵癸亥(1743)後百六十二年 今上四十一年甲辰(1904)冬陶山書院重刊”이란 것으로 간행 연대나 간행 장소를 알 수 있다. 이들 간행에 대한 기록들은 관계했던 사람의 문집에서 다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나 후일 찾아서 보충할 것이다.

이렇게 『朱子書節要』의 국내 인쇄유통은 活字本이 3종 木版本이 6종, 합하여 9종이 되는 셈이다. 책이 이뤄진 1558년 이후 1904년 갑진본이 나올 때까지 340여 년 동안에 9차례나 간행되었으니, 朱子 및 性理學 연구에 얼마나 값있는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설명하겠지만 일찍이 日本에도 유출되어 4차례나 간행되었으니 그 책이 지닌 학문적 가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높았던 것이다.

2) 國外流通

일본에 있어서의 『朱子書節要』의 流通은 일찍부터 유행되었다. 일본 유학자 山崎闇齋(1618-1682)가 이 『朱子書節要』를 읽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그 門徒들이 널리 읽게 되었고, 稻葉迂齋(1684-1760)·稻葉默齋(1732-1799) 父子의 門下에서는 이를 日課로 읽는 규약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大塚退野(1677-1750)도 이 책을 숙독하기 사십 여 년, 마침내 熊本實學派의 開祖가 되어 후세에 큰 영향을 남겼다.³⁷⁾ 이렇게 절대적인 호응을 받은 이 책은 1656년에 우리 나라 성주의 『川谷書院本』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며 일본에 있어서 간본으로는 최초였다. 이로부터 1871년 明治本이 간행될 때까지 4번이나 간행하였다.

이제 그 판본을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 (10) 明曆本 『朱子書節要』: 20권 10책, 1656刊, 木版本
 * 「明曆第貳丙申稔(1656)仲冬日 荒木利兵衛尉刊行」 <刊記>
 * 「萬曆乙亥(1575)季夏重刊于川谷書院 暮年而工畢」 <底本刊記>
- (11) 寬文本 『朱子書節要』: 20권 10책, 1671刊, 木版本
 * 「寬文十一曆辛亥(1671)仲春吉日二條通玉屋町上村次郎右衛門刊行」 <刊記>
- (12) 寶永本 『朱子書節要』: 20권 10책, 1709刊, 木版本
 * 「攝津高麗橋一丁目 伏見玉藤三郎」 <刊記>
 * 附; 「寶永六年((1709)己丑秋九月良日 黑巖慈庵跋」
- (13) 明治本 『朱子書節要』: 20권 10책, 1871刊, 木版本
 * 「明治四辛未年(1871)再鐫 龜岡牧命順子正校訂」 <刊記>

37) 阿部吉雄, 『朱子書節要 解題』, 『日本刻版李退溪全集』上冊, 退溪學研究院, 1975.

朱子書簡序
 聖人未夫子誕亞聖之遺承河洛之統
 道襲而德專素履而功崇其發揮經傳
 之旨以幸教天下後世者既皆屬諸
 神而無疑百世以俟聖人而不惑矣夫
 子既沒二王氏及余氏稟粹夫子平日
 所著詩文之類爲一書名之曰朱子大
 全總若干卷而其中所與公卿大夫
 人知舊在遺書札多至四十有八卷然
 此書之行於東方絕無而僅有故士之
 得見者蓋寡嘉靖癸卯中我
 中宗大王命書館印出頒行臣是
 始知有是書而求得之猶未知其爲何
 等書也因病罷官載歸溪上得日閉門
 靜居而讀之自是漸覺其言之有味其
 義之無窮而於書札也尤有所感蓋

朱子書簡序

朱子書札之
 大旨送對新記

朱子書札之
 大旨送對新記

就其全書而論之如地負海涵雖無所
 不有而求之難得其要至於書札則各
 隨其人材稟之高下學問之淺深指
 而用藥石應物而施錘錘或抑或揚或
 導或救或激而進之或斥而警之心術
 醫後之間無所容其纖毫義理窮索之
 際獨先照於毫髮規摹廣太心法屢
 戰兢臨履無時或息德室遷改如恐不
 及剛健篤實輝光日新其德其所以勉
 勉循循而不已者無間於人與己故其
 告人也能使入感發而興起焉不獨於
 當時及門之士爲然雖百世之遠苟得
 聞教者無異於提耳而面命也嗚呼至
 矣顧其篇帙浩穰未易究觀義所載第
 子之間或不免有得有失義之患猶不
 自揆就求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

<사진5> 1671년 일본간 寬文本 『주자서절요』

明曆本(1656)은 일본에서 최초로 간행된 初刊本인데, 이는 1575년 川谷書院本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임을 刊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후 19년 뒤에 寬文本(1671)이 간행되었는데, 이 刊本부터 川谷書院의 刊記는 삭제되었다. 그런 뒤 28년이 지난 1709년경에 寶永本(1709)이 간행되었는

데. 여기에는 1709년에 쓴 黑巖慈庵(1627-1705)의 발문이 붙어 있다. 그가 1705년에 세상을 마쳤는데, 1709년에 썼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 아마도 생전에 썼던 原稿가 사후에 간행되는 책에 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³⁸⁾ 다시 60여 년이 흐른 뒤 明治 4년(1871)에 4번째로 이 明治本(1871)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서는 「退溪先生答李仲久書」를 빼버렸다.

일본에서의 『朱子書節要』의 유통과 영향에 대한 문제는 자료를 더 보충하여 집중적으로 다시 다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IV. 『朱子書節要』와 竹川 朴光前

1. 朴光前(1526-1597)

字는 顯哉, 號는 竹川, 本貫은 珍原이다. 전라도 寶城에서 살았다. 어릴 적부터 거동이 어른처럼 의젓하였고, 책을 읽으면 그 文意를 깊이 살폈다. 1568년 戊辰에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41세 때인 1566년에 퇴계의 門徒가 되었고, 퇴계가 학문하는데 아주 긴요한 책이라고 내려 준 『晦菴書節要』에 심취하였다. 眉巖 柳希春(1513-1577)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薦擧되어 慶基殿參奉이 되었고 1581년에는 王子의 師傅가 되었다. 講學이 精明하고 바르게 輔導함에 임금께서 특별히 상을 내린 바 있다. 威悅·懷德 등 外職을 맡기도 했다.

壬辰倭亂 때는 스스로 義兵 700여인을 모집했으나 老病으로 인해 統率이 힘들어서 任啓英에게 任務를 물려주었다.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적이 호남을 침범하자 의병을 모집하고 義兵將이 되어 전력을 다했으나 얼마 안 있어 72세를 一期로 세상을 떠났다. 뒷날 이조판서로 追贈되고 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龍山書院에서 봉향되고 있다.

38) 이에 대해서는 阿部吉雄이 『『朱子書節要』解題』에서 지적해 놓았다.

2. 退溪와 竹川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박죽천이 어찌하여 41세나 되어 陶山에 와서 退溪에게 執贄했을까? 그것은 당시 호남 출신인 柳希春이 勸誘하여 안동 도산에까지 와서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竹川集』 보면

竹川이 퇴계의 문도가 된 것은 眉巖 柳希春이 추천하여 인도한 것이다. 진실로 심상치 않은 일이다.³⁹⁾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丙寅年(1566)에 퇴계를 찾아온 竹川을 보고 『晦菴書節要』(15권 8책) 한 질을 주면서

공부하는데 그 바탕이 이 책에 다 있다.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여 이 책 8책을 주노니 이로써 스스로 학문을 수립할 것이며 세속을 따르려는 속된 사람에게 이 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⁴⁰⁾

라고 당부하였다. 고향 寶城으로 돌아온 박죽천은 이 책에 잠심하면서 때때로 의문 나는 것을 퇴계에게 서면으로 물었던 것이다. 이 問目이 한편의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재 『退溪先生文集』에 竹川에게 답한 퇴계의 편지 1통만이 실려 있다. 여기 보이는 것은 竹川의 問目에 대한 퇴계의 답장이다. 제목은 <박상사 광전(朴上舍光前)과 윤수재 흠중(尹秀才欵中)에게 답함. 병인(1566)>이다.

십한이라고 하신 말씀은 진실로 그럴 듯 합니다. 대저 도라는 것은 너무나 넓고 넓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야 할 지 알 수 없으나, 다만 성현

39) 『竹川集』卷九·9 「記述」 竹川以退陶門人 爲柳眉巖所薦引者 固不尋常 …

40) 『陶山及門諸賢錄』 卷二·15 丙寅(1566)冬贄見于陶山先生 取『朱子書節要』語之曰 ‘立脚根基在此 將歸以節要 初本八冊贖之 教以自樹立 勿爲流俗所脫

의 유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긴요함을 구하기는 朱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주서를 종신사업으로 삼아서 도의 이치를 언제나 마음 속에 간직한 채 함부로 패하지 않는다면, 거의 인생일대의 기쁨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늙고 그릇된 내가 헛된 이름에 사로잡혀 끝내 실제로 얻은 것이 없는 것과 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목록을 베껴 주시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완성되지 않은 책(『주서절요』를 말함)은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저 번에 보잘 것 없는 글귀를 두어 자 고쳐서 별지에 보내드립니다.⁴¹⁾

라고 한 답장이 있으나, 박죽천이 보낸 편지는 전하지 않고, 그 제목만 『죽천집』에 실려 있다. 그리하여 죽천은 퇴계의 訓悔를 마음 깊이 새겨 두고 『晦菴書節要』에 침잠하여 노경에 이르러서도 줄곧 그만 두지 않았다. 일찍이 퇴계 선생께 질의했던 주석서가 1권이 있었는데, 선비들이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⁴²⁾

이렇게 퇴계와 죽천 사이에는 『주자서절요』를 매개로 해서 사제의 정이 돈독하였다.

3. 竹川本 『朱子書節要』

1566년 퇴계로부터 『晦菴書節要』(15권 8책)를 받은 이듬해 2월에 이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後識를 죽천은 썼던 것이다.

그 내용인즉

① 퇴계 선생이 『주자문집』을 읽고 『주자서절요』를 15권 8책으로 만든 경

41) 『退溪先生文集』 卷之十五·40 所論十寒之云 誠然誠然 大抵 道之浩浩 何處下手 惟聖賢遺訓 才方是下手處 而就其中 求其至切至要 莫先於「朱書」 苟能以爲終身事業 使此箇道理 時常在心目間 不敢廢墜 則庶幾得見人生一大歡喜事 不但老謬 徒攬虛聲 而卒無實得也 目錄 蒙許寫惠 幸甚 但此未了之本 切勿示人 前煥(水+免)拙句 有改動數字 別紙程上

42) 『竹川集』 卷七 附錄 安邦俊「竹川行狀」… 先生(竹川)亦留心訓悔 潛究節要 老而不衰 嘗有質疑一卷 士多勝行 ….

위와

- ② 퇴계 선생이 죽천에게 한 질을 주면서 학문하는 바탕은 이 책에 있으니 남을 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과
- ③ 모르는 것을 질의했을 때, 제자에게 대하는 퇴계의 학문하는 태도에 감복하여 존경한다는 것
- ④ 그리해서 1567년에 이 같은 序의 後識를 쓴다.⁴³⁾

는 것이다.

그런데, 박죽천이 소장했던 『晦菴書節要』(15권 8책)에 대해서는 3가지 물음이 일어난다.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15권 8책’인 것이다. 1558년에 쓴 퇴계의 서문에는 ‘14권 7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같은 卷帙에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착오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9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내재하고 있다. 퇴계가 처음 만든 것은 14권 7책이었으나 그로부터 9년이 흐르는 동안에 卷次의 재분류나 내용의 증수가 있음으로 해서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죽천의 소장본은 편찬 과정에서 생겨난 異本이라 하겠다.

둘째, 박죽천 소장본은 사본인가? 인쇄본인가? 죽천이 이 책을 받던 1566년 이전 5년 사이에 성주본(1561)·해주본(1564)·평양본(1564이후) 3종이 활자로 이미 간행된 바 있으니, 그 인본에 교정을 보아서 준 것이 아닐까? 그러나 활자로 간행한 것이어서 열어 보기 쉽지 않은 형편이었을 것이니, 이는 그것을 베낀 필사본일 것이 타당하다. 또,

『죽천집』의 「遺事」에 보면, 퇴계가 죽천에게 준 『주자서절요』에 대하

43) 『竹川集』卷五·7, 「朱子書節要序後識」先生 嘉靖癸卯(1543) 始得晦菴朱夫子書 求其尤關於學問 而切於受用者 唯務得要 使諸友之善書者 分卷淨寫 凡得十五卷爲八冊 至戊午(1558)始克就緒 序其事而藏之巾笥 丙寅(1566)冬 贊拜于先生 先生曰 自洙泗以還 發前聖所未發者 未有若朱子之得其宗也 以俟後來於無窮 而勸勉不已 授以八冊節要 戒以切勿工程者也 并序敬受 疑者質之 得先生之解 以究其精義 不明不措 薰陶親炙 發深省而知所警 書之于此 庶不孤先生教育之意云爾 嘉靖丁卯(1567) 二月 日 門人 朴光前謹識

여 이같이 쓰여 있다.

퇴계께서 『주자서절요』 한 질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퇴계가 평소에 點考하거나 句讀를 붙인 것이며, 이는 죽천이 편지로 질의한 것들을 써놓은 것이다.⁴⁴⁾

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전사된 퇴계의 수택본임이 확인된다.

셋째, 죽천은 『주자서절요』 편찬에 직접 참여했는가? 아니했는가? 하는 것이다.

죽천이 퇴계에게 배움을 청하던 1566년은 이미 『주자서절요』의 선취 작업이 끝나고 정서도 마친 이후인 것이 확인된다. 퇴계의 연보에 따르면, 1554년에 이미 절요한 주자의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節要하게 했다(節要朱子書 分與諸生寫之)⁴⁵⁾고 하니 初稿形成에는 참여하지 못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원고의 정리만 되었지 완성은 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1566년에 퇴계가 죽천의 편지를 받고 회답한 글 속에 공부하는데는 이 『주자서절요』가 ‘至切至要’한 것이라고 한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목록을 베껴 주시니 참으로 다행하고 고마운 일입니다.(目錄 蒙許寫惠 幸甚)

그런데 정주본을 간행하기 위하여 교정본을 보내면서 柳雲龍에게 보낸 퇴계의 편지에 보면,

목록은 매양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병이 들고 게을러서 아직 못하고 있다(目錄每欲爲之 病倦未及)⁴⁶⁾

44) 『竹川集』 卷七·9 「遺事」, … 以朱書節要 一帙贈之 乃退溪平日所嘗點考句讀 且書質疑處者也 先生敬受服膺 以爲終身事業

45) 『退溪學文獻全集』, 「退溪先生年譜補遺」, 제19책, P.424.

46) 주25) 참조.

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퇴계가 박죽천에게 준 편지는 1566년에 보낸 것인데, 그 1년 뒤에 정주본은 1567년에 간행되었으니 柳仲暉이 퇴계에게 부탁한 目錄⁴⁷⁾은 미처 정서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마침 찾아온 죽천에게 부탁하여 만들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박죽천은 정주본의 저본인 『회암서절요』 원고 편찬에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참여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4. 죽천본 『회암서절요』의 발견

이렇게 퇴계와 죽천, 그리고 『회암서절요』와의 관련을 살펴보았다. 여기 바라는 것은 이 죽천본이 현존한다면, 『회암서절요』의 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2002년 9월 14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제24차 학술대회(광주)에서 「『주자서절요』의 편찬유통과 박광전의 위치」 발표하고 하단하였다. 바로 그 때 어떤 분이 나에게 그 죽천본이 죽천의 종택에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우중에도 불구하고 죽천 박씨 문중 어른들의 안내를 받아서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화산재에서 당시의 『회암서절요』 15권 8책을 배견하게 되었다. 아무런 조사 장비의 준비가 없었고, 또 조용히 앉아서 낱낱이 대교·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기회로 미루고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책의 크기는 세로 32.9 센티미터, 가로 18.5 센티미터이며, 지질은 잘 정제된 닥종이였고, 책의 외제는 『주서절요』라고 필서 되어 있고, 내제는 『회암서절요』로 되어 있으며,
- ② 모두 15권 8책 필사본이며, 생성 당시 형태 그대로 온전하였고 改裝한 흔적이 없었다.

47) 주26) 참조.

- ③ 半面 12행 21자이며, 주는 쌍행이었다. 四周單邊, 內向花紋魚尾인데, 이는 인쇄 된 원고용지에 필사하였다.
- ④ 필사자는 4-5명이 습寫한 것이었고, 필체는 行書性楷字로 필사되었다. 문장의 중요부분에는 비점을 찍어 두었다.
- ⑤ 제15권 말미에 1561년에 쓴 황준량의 발문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는 1561년 성주본 『회암서절요』(임고서원 활자인본)를 저본으로 필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죽천본 『회암서절요』에 대한 다각적 분석은 시일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우선 발견된 사실만을 위와 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결과는 고를 달리한 후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V. 餘 言

이 때까지 『주자서절요』의 편찬 경위와 유통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로 문헌을 통하여 편찬과 유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異本들의 근거를 찾아 본 셈이다. 이 작업에서 얻어진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성주본 『회암서절요』의 인본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임란 이전의 지방목활자의 하나인 임고서원활자인본을 찾았다는 것이요

둘째, 퇴계 당시에 필사된 죽천본 『회암서절요』(15권 8책 사본)을 발견,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 죽천본 『회암서절요』를 시일관계로 미룬 것이 아쉽지만, 후일을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셋째, 외래문헌, 즉 중국문헌이 어떻게 전래되어 변용·전개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實例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런 기초작업을 근거로 하여 異本들의 문헌적 특성을 밝혀야 하는 것이 잇달아 하여야 할 작업이다. 이는 현존본의 실사와 대조에서만 그 면목이 들어 날 것이다. 이런 實査와 對照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문헌계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연의 연구

는 바로 「외래문헌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라는 큰 주제에 드는 한 작업인 것이다. 우리 한국학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래문헌의 전래와 전개라는 문헌의 개별적 기초작업이 찬찬히 지속되어야 기초가 든든한 한국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嶠南誌』

『安子年譜』

『近思錄』

『宣祖實錄』

安東人 尹妃進, 『朱文公集』

李 滉, 『退溪學文獻全集』, 啓明漢文學研究所

李 滉, 『退溪先生文集』, 국학진흥원

李滉 刊, 『朱子書節要』

李 滉, 『退溪全書』, 대동문화연구원

李彦迪, 「晦菴書節要」

柳雲龍, 『謙菴集』, 亞細亞文化社, 1981

金誠一, 『鶴峰先生文集』

鄭經世, 『愚伏先生別集』

朴光前, 『竹川集』

權斗經 編, 『陶山及門諸賢錄』

阿部吉雄, 「朱子書節要 解題」, 『日本刻版李退溪全集』, 退溪學研究院, 1975

류탁일, 「퇴계의 문헌관과 문헌학적 학풍의 전개」, 『퇴계학연구』 2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8

_____, 「퇴계의 『주자서절요』와 그 영향 - 외래문헌의 한국적수용과 전

개], 『청천강용권 박사송수기념논총』, 1986

_____, 『『주자서절요』주석의 맥락과 그 주석서들』, 『서지학연구』제5·6
합집, 한국서지학회, 1990

_____, 「고소설의 유통구조」, 『한국고소설론』, 아세아출판사간, 1991

투고일 2003. 12.23 심사시작일 2003. 1.6 심사완료일 2003. 1.18

Abstract

Compilation and Circulation of *Chuja's Condense Edition* and the Position of Park Kwang Jun

Ryu, Tak-il

This article examines how *Chuja's Condensed Edition* was published to be circulated to a circle of readers in a form of a printed edition. Epitomized by Toekye, *Chuja's Condensed Edition* was published for its circulation nine times in Korea and four times in Japan as follows:

1) Korea

- | | |
|-------------------|----------|
| 1 <星州本(1561)> | 黃俊良印本 |
| 2 <海州本(1564)> | 柳仲郢印本 |
| 3 <平壤本(1564-6)> | |
| 4 <定州本(1567)> | 柳仲郢刊本 |
| 5 <川谷書院本(1575)> | |
| 6 <羅州(錦城)本(1786)> | 鶴峰金誠一刊本 |
| 7 <錦山(完營)本(1611)> | 愚伏鄭經世刊本 |
| 8 <癸亥本(1743)> | 癸亥陶山書院刊本 |
| 9 <甲辰本(1904)> | 甲辰陶山書院刊本 |

2) Japan

- 1 <明曆本(1656)>
- 2 <寬文本(1671)>
- 3 <寶永本(1709)>
- 4 <明治本(1871)>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Sungju edition of *Hoeam's Condensed Edition* exists as a printed edition, and that its printed edition was already made with a local wooden printing type by Imjin Auditorium before Japanese Invasion in 1592. Second, Jukchun Edition, *Hoeam's Condensed Version* (15 Vol. 8 books), transcribed during Toekye's lifetime was found out to be reported to the academic world. Third, this edition can be presented as an concrete example of how Chinese materials were introduced to Korea.

The philological characteristics of its differnt versions, I am certain, should be continuously examined on the basis of this primary study. The future study will exhibit its own character by comparing existing editions and surveying them on the spot, which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establishment of their philological geneology. A series of philological studies will functions as a part of a main topic, "Korean recep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Materials." In the filed of Korean Stuides, this primary and philological work for this kind of topic will will pave the wa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Keyword

Chuja's Condensed Edition(朱子書節要), Toegye(退溪), Sungju edition(星州本), Hoeam's Condensed Edition(晦菴書節要), Jukchun Edition(竹川本),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柳 鐸 一

이 논문은 『朱子書節要』가 어떻게 편찬되어, 유통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退溪에 의해 요약된, 『朱子書節要』는 그것이 유통되는 동안 조선에서는 9번, 일본에서는 4번에 걸쳐 발간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 | | |
|-------------------|----------|
| 1 <星州本(1561)> | 黃俊良印本 |
| 2 <海州本(1564)> | 柳仲郢印本 |
| 3 <平壤本(1564-6)> | |
| 4 <定州本(1567)> | 柳仲郢刊本 |
| 5 <川谷書院本(1575)> | |
| 6 <羅州(錦城)本(1786)> | 鶴峰金誠一刊本 |
| 7 <錦山(完營)本(1611)> | 愚伏鄭經世刊本 |
| 8 <癸亥本(1743)> | 癸亥陶山書院刊本 |
| 9 <甲辰本(1904)> | 甲辰陶山書院刊本 |

2) 일본

- | |
|---------------|
| 1 <明曆本(1656)> |
| 2 <寬文本(1671)> |
| 3 <寶永本(1709)> |
| 4 <明治本(1871)> |

이 작업에서 얻어진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星州本 『晦菴書節要』의 인본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임란 이전

의 지방목활자의 하나인 臨臯書院 活字印本을 찾았다는 것이요.

둘째, 퇴계 당시에 필사된 竹川本 『회암서절요』(15권 8책 사본)을 발견,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 죽천본 『회암서절요』를 시일관계로 미룬 것이 아쉽지만, 후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셋째, 외래문헌, 즉 중국문헌이 어떻게 전래되어 변용·전개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實例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런 기초 작업을 근거로 하여 異本들의 문헌적 특성을 밝혀야 하는 것이 잇달아 하여야 할 작업이다. 이는 현존본의 실사와 대조에서만 그 면목이 들어날 것이다. 이런 實査와 對照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문헌계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연의 연구는 바로 「외래문헌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라는 큰 주제에 드는 한 작업인 것이다. 우리 한국학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래문헌의 전래와 전개라는 문헌의 개별적 기초 작업이 찬찬히 지속되어야 기초가 든든한 한국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제어

朱子書節要, 退溪, 晦菴書節要, 星州本, 竹川本,